

제공일자	2011. 4. 6(수)	담당자	김대환 연구위원	
홍보담당	김세환 부장(3775-9051)	연락처	3775-9026	총 2 매

제목: 은퇴자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

은퇴 이후 배우자보다는 자녀가 있어 더 행복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김대환 고령화연구실 연구위원은 『은퇴자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이라는 보고서(보험동향 2011년 봄호 테마진단)를 통해 우리나라 은퇴자들이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경제발전과 가족부양이라는 부담 속에서 정작 본인들의 노후준비에 소홀한 베이비부머(Baby Boomers)들이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증연구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은퇴자들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더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에 포함된 은퇴자 10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 및 대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미만의 학력을 가진 은퇴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각각 1.13배, 1.34배 높아 우리나라 사회에서 학력의 중요성은 은퇴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은퇴자는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은퇴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 우리나라 은퇴세대들은 가족관계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은퇴자는 없는 은퇴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1.6배 높으며, 자녀가 있는 은퇴자는 없는 은퇴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소득도 노후생활의 행복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건강한 은퇴자는 건강하지 않은 은퇴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5배 가까이 높아 건강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민영건강보험이나 사적연금을 소유하고 있는 은퇴자들의 삶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김대환 연구위원은 “소득과 건강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보니 젊었을 때 보험이나 연금에 미리 가입한 은퇴자들은 소득이 급감하고 의료비가 증가하는 노후에도 근로 소득 감소나 건강 악화에 대한 염려를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해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고 주장하였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